“붓다 가르침, 삶에서 실천될 때 진가 발휘”



초기불교
박광준 지음
민족사 펴냄/2만8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초기불교에 관심을 가진 독자라면 〈초기불교-붓다의 근본 가르침과 네 가지 쟁점〉의 출간은 반가운 일일 것 같다. 이 책은 초기불교를 만들어 낸 사회 · 문화적 바탕과 역사적 배경을 논리적 ·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교리에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을 명료화함으로써 초기불교에 관한 새로운 논의 마당을 만들려는 의도에서 집필 · 출간되었다.

저자는 초기불교와 관련된 많은 물음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나름의 해명을 시도하는데, 이는 많은 논란거리를 포함한다. 또한 인간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해 가면서 전에 없이 평화를 느끼게 된 저자의 체험담이 소개되기도 한다. 이런 개인적 체험담은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록에는 저자가 인도서 찍은 사진 46점의 컬러 사진도 수록되었다. 초기불교의 사실성을 뒷받침해 주는 사진들만을 가려 뽑았다. 본문 내용과 연계돼 있어 그때그때 사진과 해설을 참고하면 본문 내용을 생생히 이해할 수 있다.



붓다 탄생지 룸비니, 붓다 탄생지를 기념하는 마야성당, 산욕에 사용되었다고 전해지는 푸스카리니연못, 그리고 아쇼카왕석주가 보인다.

초기불교와 관련한 네 가지 쟁점

이 책은 초기불교와 관련해 학계서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은 핵심 쟁점 네 가지를 정리한 뒤 그에 관한 저자의 견해를 제시하는 데 내용 절반을 썼다. 저자가 제시하는 핵심 쟁점 네 가지는 첫째, 깨달음의 조건은 무엇인가? 둘째, ‘6년 고행설’이라는 오해는 어떻게 고착화되었는가? 셋째, 붓다는 윤회를 어떻게 보았는가? 넷째, 붓다 업론과 바라문 업론은 어떻게 다른가? 등이다. 각각의 쟁점과 관련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 ①: 깨달음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 책에서는 붓다의 깨달음이 첫째, 지식과 소양, 둘째, 멈추기의 도전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 조건 위에서, 선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밝혀서 깨달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한다.

붓다의 깨달음은 ‘완전한 깨달음’이었다. 완전하다는 의미는 자신의 고통 문제를 해결하는 깨달음인 것과 동시에, 중생의 고통 문제 해결법을 발견한 것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깨달음의 조건뿐만 아니라 깨달음 이후의 수행에 관한 의미 해석과도 관련된다. 저자가 이 문제를 초기불교 쟁점 중 가장 먼저 제시한 이유는, 한국불교에 ‘깨달음지상주의’라는 현상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저자는 ‘깨달음 지상주의로부터의 출가’ 또한 붓다 깨달음에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한다. 저자는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깨달음에는 선정 이전에 필요조건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키 위해, 이 문제를 초기불교의 첫 번째 쟁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쟁점 ②: ‘6년 고행설’ 오해 어떻게 고착화됐나?

저자가 보기에, 오늘날 동아시아불교 교리 중에서 가장 사실과 멀어진 것이 바로 6년 고행설이다. 그것은 붓다가 출가 후 6년간 고행했고,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고행을 포기함으로써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설명이다. 이 설에 의하면, 고행이란 향락(애욕)과 함께 양극단의 하나이며, 오로지 버려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저자는 이것이 초기불교에 관한 매우 그릇된 이해임을 강조한다. 붓다의 깨달음은 고행을 포함한 6년간 수행으로 얻어진 것이며, 그 바탕에 철학적 소양과 지식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 고행설이 마치 붓다법인 양 오전(誤傳)된 것은 초기경전이 고행주의를 부정하는 부파불교를 통해 전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게다가 고행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 경전 분석을 통해서 철저하게 규명하려 하지 않고, 한번 정형화된 설이라면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퍼뜨리는 연구 풍토 역시 6년 고행설을 오랫동안 고착화시켰다고 본다.

저자는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 책에서 붓다가 고행을 어떻게 설했는가를 밝히고, 초기불교 경전에 나타난 고행 개념을 자이나교 및 바라문교와 비교 관점에서 고찰한다. 또한 난행(難行), 범행(梵行), 두타행(頭陀行), 사의(四依) 등 고행과 관련된 개념들을 비교 검토한다. 나아가, 붓다가 고행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 직전에 극단적 고행을 그만두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한다.



붓다 정각지에 건립된 마하보디사원.

초기불교 교리 관련 쟁점 명료화
‘깨달음’ ‘6년고행’ ‘윤회’ ‘업론’ 등
유럽, 남방, 일본 등 연구 참조해
저자가 찍은 46점의 사진도 수록

쟁점 ③: 붓다는 윤회를 어떻게 보았는가?

붓다는 윤회에 관련된 질문에 무기(無記: 질문에 침묵하는 것)로 일관했다. 그러므로 붓다의 윤회관을 탐구하는 것은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해 내는 작업이다.

저자는 붓다가 윤회가 없다는 말을 입에 올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침묵했다고 본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려 했을 수도 있으나, 붓다는 윤회를 믿는 사람에게도 불법을 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출가자든 재가자든 윤회를 믿는 것은 개인적 자유이지만, 붓다가 윤회를 설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임이라고 못박는다. 저자는 초기불교가 아트만을 인정했느냐 아니냐에 관해서는, 무아설과 비아(非我)설을 초기경전에 기초해 가능한 한 자세히 검토한다.

쟁점 ④: 붓다 · 바라문 업론은 어떻게 다른가?

이 책에서 업론을 초기불교의 쟁점으로 제시한 이유는, 붓다 업론이 인(因: 직접 원인)과 과(果: 결과) 사이에 연(緣)이라는 간접 원인을 설정한다는 점, 그리고 연은 사회적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교리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이다. 붓다 업론은 ‘인-연-과’ 체계로 되어 있다. 붓다는 인-과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거나 그 관계를 규명하려 하지 말라고 설했다. 저자는 붓다 업론은 ‘인-과’가 아닌 ‘이숙인-이숙과’의 관계임을 분명히 하고, 그것은 ‘현재’ 중심의 업론이며 한마디로 자기 책임론임을 강조한다. 붓다 업론이 바라문교 업론과 다른 점, 붓다 업론이 가진 희망적 성격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포기와 좌절의 의미를 내포한 ‘체념’이란 말 대신 ‘제념’이라고 쓰길 제안한다. 그리고 한정된 시간 내에는 바꿀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 다른 일들은 자신의 바람과는 다른 원리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는 마음이 곧 제(諦)의 마음이라고 설명한다. 사성제(四聖諦)란 바로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진리일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인다.

이 책은 초기불교를 고대 인도의 역사문화 및 사회사상과 가능한 한 비교 관점에서 기술함으로써 그 독자성을 분명히 밝힌다. 저자는 붓다 사상을 소개할 때, 그것이 바라문교나 자이나교와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를 가능한 한 자세히 규명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초기경전 중에서 오래된 경전과 후대의 경전으로 다시 구분하거나, 혹은 하나의 초기경전 안에서 최초에 만들어진 부분과 후대에 추가된 부분으로 구분해, 양자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초기불교의 특징을 찾아내려고 시도한다. 이로써 초기경전의 시기를 구분해야지만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밝힌다.

초기불교에 관해서는 이미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다. 이 책에서는 한국 선행연구는 물론, 일찍부터 초기불교를 연구한 유럽 선행연구, 남방불교 선행연구, 일본 선행연구들을 두루 참조함으로써 논의의 객관성을 높였다.

붓다의 근본 가르침, 그것 따라 걷는 길

붓다는 인간 붓다이며 역사적 붓다이다. 즉 가공 인물도 초인적 인물도 아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고, 젊은 날에는 고뇌했고, 인간의 몸으로 깨달음에 도전해 목표를 달성했다. 그리고 깨달음의 지혜를 수많은 고통 속 중생을 구제했고, 인간의 몸으로 입멸했다. 그는 길 위의 사람이다. 깨달음을 얻은 후 그는 45년 동안 우안거를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유행(遊行)했다. 설법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걸어 다가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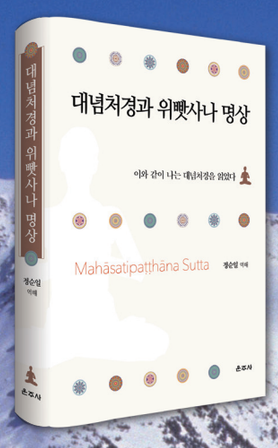
저자는 책 속에서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붓다에게 묻고,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해답을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붓다의 삶을 살펴보고, 또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불자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붓다의 가르침은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고, 인간 붓다는 사람들이 자신을 신앙 대상으로 숭배하기보다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더 바랄 것이라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저자는 붓다가 법을 어떻게 실생활에 반영하는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 거라 말하며, 불교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 책은 독자들도 붓다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떤 선택에 앞서 보다 평화로운 선택이 어느 쪽인가 하고 붓다의 가르침에 비추어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을 몸에 붙이려고 노력함으로써 각자의 삶이 평화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 책을 통해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 **박광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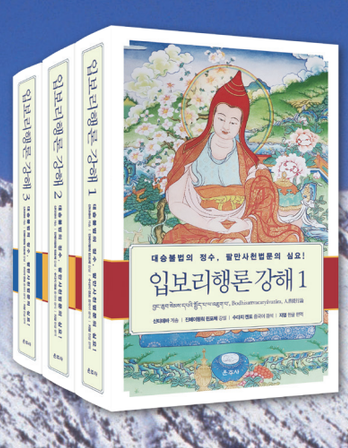
1958년 통영 출생. 부산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정부 초청으로 유학해 일본 북교대학서 영국복지사상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산여대(현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1990~2002), 중국 시베이대학(西北大學) 객좌교수, 동국대(서울) 객원교수, 중국 옌벤대학(延?大學) 대학원 객원교수,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 노동경제연구소 방문학자를 역임하고,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북교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불교사상을 포함한 동서양 복지사상, 동아시아 사회정책(역사) 비교연구가 주된 연구영역이다. 저서로는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붓다의 삶과 사회복지〉 〈조선왕조의 빈곤정책: 중국 · 일본과 어떻게 달랐나〉 등이 있다.

위빳사나 수행의 소의경전!
대념처경과 위빳사나 명상



불교 명상의 핵심인 사띠(sati)에 대한 가르침을 담은
『대념처경』의 빨리어 전문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번역하고 해설!
정순일 역해/신국판/양장/376쪽/값 22,000원

티베트 수행자들이 반드시 배우고 수행하는 논서!
입보리행론 강해 1~3



대승불교의 핵심인 보리심과 공성에 대한 샨티데바의
가르침에 진메이펑춰 린포체가 방대한 해설을 달았다.
샨티데바 게송/진메이펑춰 린포체 강설/지엄 편역
신국판/양장/1권 668쪽, 2권 656쪽, 3권 680쪽/각권 값 35,000원

조선의 유학자, 깨달음을 말하다!
불교를 사랑한 조선 유학자의 선어록



<술몽쇄언述夢瑣言>
꿈이라는 소재를 통해 불교의 깨달음과 수행, 생사 문제를
조리정연하게 설파한 보석 같은 책!
김대현 저/박성덕 역/국판/208쪽/값 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